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2022년 4월 27일(수) 10시
장소	현대건설 본사 앞(서울 종로구 을곡로 75)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1	살인기업선정식 및 참석 단위 소개		
2	발언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태의
3	<input type="checkbox"/>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사회자
4	발언②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위원장	강한수
5	<input type="checkbox"/>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사회자
6	발언③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간사	이지우
7	발언④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유족)	정석채
8	발언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9	기자회견문 낭독	매일노동뉴스 대표	부성현
10	퍼포먼스		

자료 순서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1p
2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5p
3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0p
4	기자회견문	15p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 추락·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 올해 1월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2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고자 합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진행경과

-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의 기초자료는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자료입니다.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하청기업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까지 원청 기준으로 합산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합니다. 또한, 사고사망 외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3).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명단

-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연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1	한익스프레스	- 2020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사고로 3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함. 한익스프레스는 2008년에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산재 참사가 있었던 기업임.
2020	대우건설	- 2019년 한 해 동안 7명의 노동자가 질식, 깔림, 떨어짐 사고로 사망함. 당시 사망한 노동자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음. 대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회나 선정된 대표적인 살인 기업임.

2019	포스코건설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칼	-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칼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연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1	쿠팡	- 쿠팡은 2020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한 해 동안 16명이 과로로 사망한 한국 물류서비스업의 살인적 경쟁 속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
2020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적폐경영과 그에 따른 갑질과 부조리로 부산에서만 14년간故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	-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함. 9월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함.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제도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사용하도록 방치함.
2019	서부발전	- 2014~2018년 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중 서부발전이 7명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 10여 번의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결국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보건복지부	-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 태움으로 인한 자살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지고 있음.
2018	우정사업본부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2017	교육부	-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	-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2016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 전염병 방지,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2015	-	-
2014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2013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 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2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 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1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2.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최악의 살인기업 4관왕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에서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국내 최고의 건설기업에서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떨어지고 부딪혀 사망

1).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위	현대건설(주)	6명	전원 하청
2위	(주)대평	5명	전원 원청
공동 3위	(주)대우건설	4명	전원 하청
	(주)태영건설	4명	전원 하청
공동 5위	이일산업(주)	3명	전원 하청
	(주)한양	3명	원청1, 하청2
	현대중공업(주)	3명	원청1, 하청2
	SK TNS(주)	3명	전원 하청
	(주)S&I건설	3명	전원 하청

(고용노동부 2021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2). 2022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건설(주)

● 선정근거

- ▶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현대건설(주)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2021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현대건설(주)에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2021년 현대건설(주) 사고사망 발생 경위 및 형태

사고발생일	사망(명)	사고경위	발생형태
21-01-29	1	지하 1층 환기구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떨어짐
21-03-11	1	철제빔 설치작업 중 전도되는 빔에 끼여 사망.	끼임
21-05-27	1	굴착면 하부에서 쓰레기 청소 중 부석에 맞아 사망.	맞음
21-08-05	1	터파기 현장에 앉아있던 재해자가 굴착기 버킷에 부딪혀	부딪힘

		사망.	
21-09-06	1	지상 1층 리프트 출입구 내부 기초바닥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떨어짐
21-10-06	1	말비계 위에서 천장 콘크리트 할석작업 중 떨어지는 콘크리트 부석에 맞아 사망.	맞음

- ▶ 현대건설(주)은 이미 2007, 2012,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2022년에 또다시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를 일으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며, **최악의 살인기업 4관왕 자리를 차지함.**
- ▶ 특히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2005~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110명 사망)
- ▶ 현대건설(주)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때에도 2011년 11명 사망으로 2위, 2014년 5명 사망으로 공동 6위, 2020년 6명 사망으로 2위, 2021년 4명 사망으로 공동 4위를 차지하며 선정식 명단에 이름을 올림.
- ▶ 꾸준히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주)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 올해 4월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주)의 주요 현장에 대해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254건이 적발되었음. 적발된 건수 가운데, 추락사고 예방용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59건(23.2%)으로 가장 많았음.
- ▶ 작년 한 해 동안 현대건설(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6명이며,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임.

연도	순위	사망한 노동자수(명)	비고
2021	공동 4위	4	전원 하청
2020	2위	6	5명 하청
2015	1위	110	(2005~2014 합산)
2014	공동 6위	5	-
2012	1위	10	-
2011	2위	11	-
2007	1위	10	-

△ 현대건설(주)이 이름을 올린 역대 <살인기업선정식> 살인기업 명단

3).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 ▶ 작년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업 39곳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94명이며, 이 가운데 66명(70%)이 하청업체 노동자였음.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자료에서 제외된 기업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산재사고로 사망

한 노동자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올해 살인기업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이미 과거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여러 차례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임. 노동자 안전 문제를 대하는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임.
- ▶ 작년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업 39곳 가운데 26곳(67%)이 건설업종에 해당함.
-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보아도, 산재 사고사망자 828명 가운데 417명(50.4%)이 건설업 노동자였음. 노동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건설협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2022년 1~2월에 경총에서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85%가 법 제정에 반대함.)

4). 살인기업별 산재사망사고 정리

- ▶ 발생사업장 노동자 수는 원청 기업의 노동자수를 뜻하며, 해당 노동자가 사망한 하청기업의 노동자 숫자는 이와 다를 수 있다.
- ▶ 건설업의 경우 해당 건설현장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공사금액을 병기하여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건설(주) 6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사고 발생일	하청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명)	공사금액(원)
21-01-29	대하산업개발(주)	경기 고양시	1	떨어짐	452	242,544,889,000
21-03-11	인방산업(주)	충남 서산시	1	끼임	1690	753,200,000,000
21-05-27	두송건설(주)	인천 미추홀구	1	물체에 맞음	451	274,379,522,753
21-08-05	(주)부강티앤씨	경기 고양시	1	부딪힘	450	151,721,706,000
21-09-06	(주)에일엔지니어링	경기 군포시	1	떨어짐	570	360,979,203,397
21-10-06	대흥건설(주)	서울 서대문구	1	물체에 맞음	213	135,318,240,000

□ 2위 - (주)대평 5명 사망(제조업) : 전월 원청

사고 발생일	하청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명)	공사금액(원)
21-08-28	-	경북 상주시	5	폭발	80	-

- ▶ 상주시 함창농공단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일어나 6명의 중상자가 발생함. 이후 중상을 입은 노동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여, 해당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5명으로 파악됨.

□ 공동 3위 - (주)대우건설 4명 사망(건설업) : 전월 하청

사고 발생일	하청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명)	공사금액(원)
21-02-23	(주)씨엠산업	경북 청도군	1	깔림	90	123,058,000,000
21-04-14	(주)대우에스티	부산 해운대구	1	떨어짐	14	110,000,000
21-04-30	(주)한강이앰피	서울 성북구	1	무너짐	8	369,761,364,944
21-07-23	(주)일창건설	경기 수원시	1	이상온도	700	455,464,079,426

- ▶ (주)대우건설은 2020, 2014, 201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이외에도 2019년 4명 사망으로 공동 6위, 2017년 8명 사망으로 2위, 2016년 6명 사망으로 5위, 2013년 공동 4위, 2012년 6명 사망으로 공동 4위에 올라 살인기업 명단에 지속하여 등장함.
- ▶ 특히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선정된 바 있음. (2005~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102명 사망.)

□ 공동 3위 - (주)태영건설 4명 사망(건설업) : 전월 하청

사고 발생일	하청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명)	공사금액(원)
21-01-20	삼현건설(주)	경기 과천시	1	깔림	84	39,900,000,000
21-02-27	(주)강호건설산업	경기 과천시	1	깔림	7	174,221,000,000
21-03-19	상하건설(주)	경기 구리시	1	맞음	265	133,170,000,000
21-12-27	대양건설(주)	경기 양주시	1	무너짐	110	103,664,859,417

- ▶ (주)태영건설은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살인기업 명단 공동 4위에 올랐으며,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39위에 선정된 바 있음. (2005~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20명 사망)

3.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 현대산업개발

● 선정근거

[1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 ▶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에서 건물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쳐 총 17명의 사상자 발생.
- ▶ 조사 결과, 법과 원칙을 어기고 진행된 철거 작업 때문에 벌어진 사고임이 밝혀짐. 현대산업개발은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으나,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도급을 준 뒤, 도급업체는 수주받은 가격의 약 25% 비용으로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남. 철거는 제출된 철거 계획서와 다르게 무리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무너진 건물은 9명의 목숨을 앗아감.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7개월 만에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전년도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올해 1월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사망한 여섯 명의 노동자는 이번 선정 근거 산출 시 포함되지 않음.
- ▶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지 약 7개월 만에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줌.

[5년간 최소 5건의 중대재해 발생, 역대 <살인기업선정식> 명단에도 수차례 등장]

- ▶ 현대산업개발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2016~2020년에 다섯 번 이름을 올림.

발생연도	공사	사망자 수(명)	하청기업명
2019	파주운정A26BL 아파트 건설공사	1	(주)유림테크
2017	현대백화점 천호점 증축공사	1	(주)삼진철구
2017	거제 양정·문동지구 IPARK 신축공사	1	씨에이테크(주)
2016	주한미군기지이전 공사	1	(주)미동이엔씨
2016	광고 IPARK 신축공사	1	개일건설(주)

△ 2016~2020년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 ▶ 또한, 2006년에 <살인기업선정식>이 시작된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권 명단에도 수차례 명단에 이름을 올림. 2007년 6명 사망, 2010년 8명 사망, 2018년과 2019년에는 4명이 사망.
- ▶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하청노동자였으며, 석차가 같은 기업이 많아 순위상 각각 5위, 6위를 기록했으나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세 번째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에 해당함.

연도	순위	사망자 수(명)	비고
2019	6위	4	전원 하청노동자
2018	5위	4	전원 하청노동자
2010	3위	8	-
2007	6위	6	-

△ 현대산업개발이 이름을 올린 역대 <살인기업선정식>

- ▶ <살인기업선정식> 10회를 맞아 2015년에 진행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명단 발표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어김없이 등장. 10년 동안 4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14위에 이름을 올림.

[‘시간끌기’ 작전으로 책임은 회피하고 수주에 열 올리는 현대산업개발]

- ▶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건물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음.
- ▶ 현대산업개발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처분 집행을 늦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 행정처분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31일, 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4월 8일에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4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처분 집행이 정지됨.
- ▶ 2022년 4월 18일, 현대산업개발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8개월의 영

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 금액의 8%인 4억 623만4천원의 과징금을 내고 8개월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음.

- ▶ 같은 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업체(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주)한솔·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림. 철거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일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함. (안전저널, 김성민 기자, 2022.04.19)
- ▶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행정처분을 피하려 붕괴원인을 규명하는 ‘감정’을 이용하고 있음. 18일 공판기일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국토부의 감정 결과로는 붕괴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추가 감정을 신청함. (재판부에 의해 기각)
- ▶ 현대산업개발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한편, 수주에는 열을 올리고 있음.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4월 14일에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따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기업의 책임 요구]

- ▶ <살인기업선정식>은 2016년에도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질병관리본부, 가슴기 살균제 제조 판매기업을 선정하여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아우르는 기업의 책임을 물어왔음.
- ▶ 이번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이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기업이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줌.

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선정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저지 및 무력화 최전선에 선 경총]

- ▶ 한국사회에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지는 법임.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중대재해’라는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조명하는데 있음.
-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의 ‘효용성’과 ‘허점’을 부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주장.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20년부터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금까지 끊임없이 법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려 애쓰고 있음. 2021년 3월에는 중대재해의 범위 축소,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원청의 책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발언 날짜	발언내용	발언자
20-12-17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누구도 CEO를 맡으려 하지 않을 거다. 경영총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21-05-12	확률적으로 사망자가 1명인 경우 안전설비 미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원인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건건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간다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
21-05-16	실효적인 안전대책 없이 명분만을 앞세워 경영인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입법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22-03-24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피해자가 청원을 한 뒤 여론에 떠밀려 한 달 만에 만들어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 CJ 회장)
22-04-19	한국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규제완화를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 아주 좋은 정부가 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CJ 회장)

△ 경총 인사들의 주요 발언 모음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 경총과 보수경제지의 굳건한 동맹]

- ▶ 경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경제

지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쓰며 법 관련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게 만들.

- ▶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6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다른 모든 매체가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도량이 많았으나, 경제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도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총, 전경련 등의 단체에서 낸 우려의 목소리를 뉴스로 많이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임. (미디어오늘, 김연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소장, 2021.12.26)
-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법 논리를 이야기하며 형법으로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경제지들은 법 제정 이후 누구보다 꾸준히 ‘법인’인 기업의 ‘감정’을 전달함. 법 시행 이후, 기업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짐.

[경총은 언제나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

- ▶ 2020년 12월 18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는데, 앞으로 경총이 그 역할을 맡겠다”, “주요 현안들도 문제지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 정서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발언. 손 회장의 말대로, 경총의 행보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경총은 대외적으로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한 작업환경을 비롯한 노동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발표한 입장이나 구성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언제나 기업의 이익을 제일로 두고 있음이 드러남.
- ▶ 올해 4월 19일에도 경총은 국내 기업 367개사(상시노동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들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높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힘.
- ▶ 경제지들은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마치 기업들이 안전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의 모호성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도함. 경총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기업들이 산업재해 문제를 타협 가능한,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4. 기자회견문 전문